



##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 ①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 발생상황별 전국을 3단계 구분·관리
-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지속 추진
- 전국 ASF 감시체계 강화

### ②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 양돈농장 소독·방역시설 보완
- 모돈·복합영농 등 취약요인 관리
-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홍보·교육 강화

### 1.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하여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집중관리지역) 최근 3개월이내 ASF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우려지역, 경기·강원·충북·경북 23개 시·군(가평, 양평,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영동, 청주, 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하여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하여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2년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km<sup>2</sup>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 먹이터 조성,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포획방법 동원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 기존 : 포획개체의 30%만 표본 검사 → 강화 : 100% 전수 검사

또한,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차단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지방청, 질병원, 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 해빙·산불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훼손 여부 파악하여 즉시 보수, 특별 점검 후에는 울타리 현장관리인(120여명) 활용하여 점검 지속

## 2.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 7대 방역시설 기준 2,012호(37%) 완료(발생지역 97%, 인접지역 80%, 그 외 21%)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시설(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강원, 제주를 제외한 7개 도별 월 2회 실시(시군별, 농가별 추진상황 점검)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임차농장, 모든 사육농장, 그 외 농장

그 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하여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털발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든사 공사 금지, 모든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한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ASF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분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히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든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br>구제역방역과   | 책임자 | 과 장 | 정재환 | (044-201-2531)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정주 | (044-201-2537) |
| 담당 부서<br><총괄> | 환경부 자연보전국<br>야생동물질병관리팀 | 책임자 | 과 장 | 김지수 | (044-201-749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원빈 | (044-201-7492) |

